2025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 답

1	③	2	①	3	②	4	④	5	④
6	②	7	①	8	③	9	⑤	10	③
11	⑤	12	①	13	⑤	14	①	15	②
16	④	17	②	18	⑤	19	③	20	②
21	⑤	22	②	23	①	24	①	25	⑤
26	④	27	⑤	28	②	29	②	30	③
31	③	32	⑤	33	④	34	⑤	35	③
36	⑤	37	④	38	③	39	①	40	③
41	①	42	④	43	②	44	②	45	④

해 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을 이해한다.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은 있으나, 청중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 '어릴 적 종이비행기를 접어 하늘 높이 신나게 날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에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② 2문단 '자료 1을 가리키며', 3문단 '자료 1을 가리키며', '양팔을 벌려 Y자 모양을 취하며', '자료 2를 가리키며'의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청중의 질문에 '멀리 날리기 종목과 ~ 쉽게 하도록 합니다.'라고 답하며 청중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⑤ 5문단 '오늘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 펼쳐 보세요.'에서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자의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자료 1]은 종이비행기가 오래 날기 위한 날개의 면적과 모양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로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자료 1]은 비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이의 두께와 관련이 없다. ③ [자료 2]는 비행기의 균형 유지를 위한 상반각의 각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공기 흐름의 압력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④ [자료 2]는 상반각 설정을 통해 날개 각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나 비행 속도와는 관련이 없다. ⑤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날개의 길이와 비행 거리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3. [출제의도] 발표 내용을 파악한다.

날개 끝을 위로 접으면 비행기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기 쉬워 더 오래 날 수 있다. 따라서 양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날개의 면적이 넓을수록 양력이 커'진다고 언급하므로 ㄱ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상반각을 적절하게 만들어 비행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ㄷ은 적절하다. ④ 4문단에서 '멀리 날리기용 비행기는 날개를 길고 좁게 접'어 '항력을 줄'인다고 언급하므로 ㄹ은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곡예용 비행기를 접을 때는 좌우 날개의 모양에 ~ 쉽게 하도록 합니다.'라고 언급하므로 ㅁ은 적절하다.

4. [출제의도] 회의의 진행자 역할을 이해한다.

(가)에서 '동아리 부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 과정에서 진행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 '동아리 부장'이 발언 중 회의의 결과에 대한 회의 참여자들의 소감을 묻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동아리 부장'은 첫 번째 발화에서 회의의 목적이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조언하는 글을 동아리 소식지에 싣기 위함임을 회의 참여자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② '동아리 부장'은 두 번째 발화에서 진로 탐색에 대한 부원들의 발언 내용을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정보는 '커리어넷'과 '어디가'를 참고하면 된다고 요약해 정리하고 있다. ③ '동아리 부장'은 세 번째 발화에서 진로, 학업 이외에 다룰 만한 사연으로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이어서 다루어 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⑤ '동아리 부장'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다음 회의 때는 자신이 쓴 글을 읽고 같이 고쳐 보자며 다음 회의의 화제를 예고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5. [출제의도] 회의에서의 말하기 전략을 이해한다.

(가)의 [A]에서 '부원 2'는 기존에 '이미 멀어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원 3'의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 시작 방법을 듣고, '멀어진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기존 생각이 바뀌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부원 1'이 '부원 3'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상황 분석과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할 뿐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 '부원 2'는 '부원 1'이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 회복 방법으로 제시한 '진솔한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부원 2'가 해당 해결책이 갈등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 더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A]에서 '부원 3'은 자신의 의견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부원 3'은 '부원 2'에게 사이가 멀어진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⑤ [A]에서 '부원 1'이 '부원 2'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해당 답변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출제의도] 회의 내용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나)에서 '동아리 부장'은 '커리어넷'과 '누리집'을 이용한 진로 탐색 방법에 대한 설명만 제시하고 있을 뿐, 동아리 부원의 진로 탐색 경험과 유사한 또 다른 사연을 추가로 수집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동아리 부장'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오늘 논의한 고민의 순서대로 소제목을 달아 글을 구성'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그 순서에 따라 진로, 학업, 친구 관계의 순서로 글을 구성하고 고민 내용을 소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목표를 작게 쪼개 봄으로써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부원 2'가 '뭔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정체기가 와 힘들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해당 발언이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제시되어 있다. ④ (가)에서는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하고, 친구의 생각도 듣고 싶다고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해당 방법이 '너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해. 네 생각은 어떤지 말해 주면 좋겠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가)에서는 '부원 3'이 '아직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며 '우리 동아리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 주'자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3층 또래 상담부 동아리실이나 또래 상담부 누리집에 상담을 신청'하라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한다.

제시된 신문 칼럼은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하다 보면 우연히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나)의 진로 탐색과 관련된 조언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즉 신문 칼럼을 활용하여 (나)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과 맞는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우연히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는 진로 탐색의 방법으로 온라인 누리집을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다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은 (나)와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 ③ 제시된 신문 칼럼은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공부 방법을 활용해 끈기 있게 노력하라는 내용은 제시된 자료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제시된 신문 칼럼은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수립한 계획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 학습 과정의 정체기를 극복하라는 내용은 제시된 자료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고 친구의 입장에서 공감해야 한다는 내용은 (나)에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활용하여 (나)에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해당 내용은 제시된 자료의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8.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학생의 초고'에는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메모에 담긴 여러 일화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4문단의 '파도처럼 요동치던 나의 마음',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물결같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④ 1문단의 '눈물이 핑', 3문단의 '손가락이 통통'에서 의태어를 사용하여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1문단의 'ㄲ트머리가 누렇게 변한 책자', 4문단의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물결'에서 색채어를 활용하여 소재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9.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초고에는 동생이 '나'의 감정을 헤아려 주었다는 내용과, 동생에게 고마움을 느꼈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엄마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에서 엄마의 메모를 발견했음이 반영되어 있다. ② 2문단의 '앞으로의 일들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고는 했었다.'에서 일정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음이 반영되어 있다. ③ 3문단에서 '일상 속 소중한 추억도 짤막한 메모로 남아 있었다.'에서 메모를 통해 추억을 되돌아보았음이 반영되어 있다. ④ 3문단에서 '수많은 연습 끝에 곡을 완벽히 연주했을 때의 뿌듯함', '발전해 온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나 자신이 기특하게 여겨졌다.'에서 연습으로 발전해 온 나에게 기특함을 느꼈음이 반영되어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초고를 보완한다.

'메모는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함께 커 가는 내 삶의

소중한 짝꿍'을 보면 의인법이 사용되었고 글쓴이가 메모를 하며 성장한다는, 마지막 문단을 고려한 메모의 의미가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 '나를 과거로 데려다주는'을 보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한 메모의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고, 의인법이 아닌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를 보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한 메모의 의미가 드러나 있지만,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언제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환하게 밝혀 주는'을 보면 마지막 문단을 고려한 메모의 의미가 드러나 있지만, 의인법이 아닌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⑤ '밝게 웃으며 상상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는 친절한 안내원'을 보면 의인법이 사용되었지만, 마지막 문단을 고려한 메모의 의미는 드러나 있지 않다.

11. [출제의도] 보조 용언의 특징을 이해한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이는 용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의미의 본용언 또는 '행위를 시도하다.'라는 의미의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인다.

[오답풀이] ①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달리 서술어로 홀로 쓰일 수 없다. ②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없으므로, 보조 용언의 바로 앞에는 부사어가 올 수 없다. ③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보충하는 용언이므로 본용언의 의미를 대신 나타낼 수 없다. ④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 위치하여 의미를 덧붙인다.

12. [출제의도]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할 수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의미를 통해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본용언은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는 의미를 갖고,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행위를 희망, 시도하는 등 본용언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덧붙인다.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없고, '-어서/아서'나 '-고서'와 같이 행위나 작용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로 둘을 연결할 수 없다. ㉠의 '가다'는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어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므로,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이다.

[오답풀이] ② ㉡의 '싶다'는 본용언 '받다'의 행위를 희망한다는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다. ③ ㉢의 '보다'는 본용언 '듣다'의 행위를 시도한다는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남아서 주자'처럼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인 '-아서'를 사용하여 '남다'와 '주다'라는 두 용언을 연결하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의 '주다'는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다. ⑤ ㉣은 '열어 아주 놓다'처럼 '열다'와 '놓다'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을 넣으면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의 '놓다'는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다.

13. [출제의도] 의미 자질을 통해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소녀'와 '사람'은 상하 관계에 있는데, 이는 두 단어가 갖는 의미 자질 중 두 개가 대립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소녀'의 의미 자질이 '사람'의 의미 자질을 포함하며 여기에 [+여성]과 [-성인]을 더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사람'의 의미 자질은 '숙녀'의 의미 자질에 포함되고, '숙녀'의 의미 자질보다 하나 이상 적으므로 '사람'은 '숙녀'의 상의어이다. ② '여자'의 의미 자질은 '사람'의 의미 자질을 포함하고, [+여성]을 더 갖고 있으므로 '여자'는 '사람'의 하의어이다. ③ '소녀'의 의미 자질은 '여자'의 의미 자질을 포함하고, [-성인]을 더 갖고 있으므로 하의어인 '소녀'는 상의어인 '여자'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④ [-여성]을 가진 '신사'와 [+여성]을 가진 '숙녀'는 하나의 의미 자질만 대립을 이루고, 나머지 의미 자질은 같으므로 '신사'는 '숙녀'와 반의 관계에 있다.

14. [출제의도] 재귀 대명사의 쓰임을 이해한다.

재귀 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이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재귀 대명사가 나타내는 체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ㄱ의 '자기'는 '동생'이 아니라 '정우'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저'는 '엄마'가 아니라 '막내'를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③ '저희'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④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할머니'를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⑤ '스스로'는 '신입생'이 아니라 '선배들'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15. [출제 의도] 사이시옷 표기를 탐구한다.

<보기>에 제시된 대로 고유어 A와 B가 합쳐질 때, 탐구 과정의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ㄱ, ㄴ, ㄷ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면 앞말인 A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학습 과제에 제시된 대로, '위'와 '쪽'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의 발음은 [위쪽]이다. 이때 ㄱ~ㄷ 중에서 어떠한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B에 해당하는 단어인 '쪽'의 초성은 '위'와 합쳐지기 전에도, '위'와 합쳐져 [위쪽]으로 발음될 때도 모두 된소리 'ㅉ'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어 '윗쪽'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비'와 '길'이 합쳐진 단어의 발음은 [비낄]이다. 탐구 과정의 B에 해당하는 '길'의 발음은 '비'와 합쳐지기 전에는 [길]이었지만, 합쳐진 후에는 [낄]이 된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B의 초성이 예사소리 'ㄱ'에서 된소리 'ㄲ'으로 바뀐 것이므로, a는 탐구 과정의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비'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어 '빗길'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코'와 '날'이 합쳐진 단어의 발음은 [콘날]이다. 탐구 과정의 A에 해당하는 '코'의 발음은 '날'과 합쳐지기 전에는 [코]였지만, 합쳐진 후에는 [콘]이 된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A의 종성에 'ㄴ'이 생긴 것이므로, c는 탐구 과정의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코'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어 '콧날'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이'와 '몸'이 합쳐진 단어의 발음은 [인몸]이다. 탐구 과정의 A에 해당하는 '이'의 발음은 '몸'과 합쳐지기 전에는 [이]였지만, 합쳐진 후에는 [인]이 된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A의 종성에 'ㄴ'이 생긴 것이므로, d는 탐구 과정의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어 '잇몸'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배'와 '일'이 합쳐진 단어의 발음은 [밴닐]이다. 탐구 과정의 A에 해당하는 '배'의 발음은 '일'과 합쳐지기 전에는 [배]였지만, 합쳐진 후에는 [밴]이 된다. 또한 B에 해당하는 '일'의 발음은 '배'와 합쳐지기 전에는 [일]이었지만, 합쳐진 후에는 [닐]이 된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A의 종성과 B의 초성에 각각 'ㄴ'이 생긴 것이므로, e는 탐구 과정의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ㄷ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배'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어 '뱃일'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16~21] (인문) (가) 헨리 R. 웨스트, 『밀의 공리주의 입문』, (나)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가) 헨리 R. 웨스트, 『밀의 공리주의 입문』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 양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또한 밀은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하고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다.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거하여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 한다.

16. [출제의도] 내용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인간의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밀의 공리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고, (나)는 인간이 이기적 욕망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경제학의 효용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효용 이론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화를 선택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공리주의는 쾌락이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서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와 (나) 모두에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여론 형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를 추리한다.

밀은 질적 쾌락주의를 제시하며 공리주의가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밀은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하며,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인간의 이기심에 상충된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밀은 공리주의의 이상인 최대 행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공리주의의 발전을 이끌었다.

[오답풀이] ① 쾌락의 효용을 계량화한 것은 양적 공리주의이다. ③ 밀은 쾌락을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으로 구분하여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④ 밀은 공리주의 이론을 제도화하지 않았다. ⑤ 밀은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하지 않았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d는 튀김 3개와 초밥 3개를 선택한 소비 선택 지점이고, e는 튀김 4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한 소비 선택 지점이다. 이때 d, e는 모두 6,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으로 d의 총효용은 40이고, e의 총효용은 39이다. 즉, d의 총효용이 e의 총효용보다 크다.

[오답풀이] ① a는 5,000원으로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구입한 소비 선택 지점이다. 이때 은우는 5,000원으로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② a와 b 모두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다. 이때 a가 5,000원으로 총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므로 a에서 b로 달라지면 총효용은 작아진다. ③ b는 5,000원으로, c는 4,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다. 소비 선택 지점이 b에서 c로 달라지면 튀김의 총효용은 그대로이지만 초밥의 효용이 작아지므로 튀김과 초밥의 총효용은 작아

진다. ④ c는 4,000원으로, a는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지점이다. 소비 선택 지점이 c에서 a로 달라지면 초밥의 총효용은 그대로이지만 튀김의 총효용이 커지므로 튀김과 초밥의 총효용은 커진다.

19.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비교하여 내용을 이해한다.

한계 효용 균등 법칙의 의사 결정의 판단 근거는 개인의 이익이다.

[오답풀이] ① 최대 행복의 원리는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실행될 수 있다. 이때 내적 제재인 양심은 외적 제재와 교육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 ②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이 달라진다. ④ 최대 행복의 원리는 인간 윤리의 기준으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개인의 합리적인 소비 선택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⑤ 공리주의에서 공리는 이익과 효용을 뜻하고 공리주의는 공리를 극대화하여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최대 행복의 원리이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다. 즉, 최대 행복의 원리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모두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보기>에서 기부한 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의 효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서로의 행동에 따라 효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효용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밀에 따르면 기부 행위는 인간의 고급 쾌락인 양심에 따르는 행동으로, 고등 정신 능력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행위이다. ③ 밀은 기부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보므로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양심을 위반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경제학자는 기부하지 않은 자의 행동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해한다. 모두가 기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0만 원의 효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은 기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참가자 중 한 명이라도 기부를 하면 기부하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에 추가적인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즉, 경제학자는 기부하지 않는 사람의 선택을 실험 참가자들의 행동에 따라 효용을 비교해 보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이타적인 마음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밀이 말하는 사회적 감정이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이다. 결국 밀은 이타적인 마음을 사회적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부심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경제학자는 이를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에 해당하는 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밀은 최대 행복을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행복이라고 보았다. 누진적 소득세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로 실시하는 정책이다. 마찬가지로 기부는 실험 참가자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즉, 최대 행복의 추구, 누진적 소득세의 도입, 기부 행위는 모두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공통점이 있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다.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은 배출의 사전적 의미이다.

[22～25] (현대소설) 이문구, 「암소」

이 작품은 황씨가 뜻하지 않은 비극적인 실패를 연달아 겪으면서 좌절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농촌 사회의 급격한 변모로 농민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소외와 갈등, 농촌의 몰락과 해체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2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며 황씨를 비롯한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사건을 전달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③ 주인공이 사건을 직접 전달하고 있지 않다. ④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하나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황씨는 사업 초기에 매장치기로 사업을 꽤나 키워갔으나, 공업단지의 조성과 카시미론이라는 새로운 직물의 등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맞게 된다.

[오답풀이] ② 촌사람들은 카시미론이 등장하자 그것에 현혹되었다. ③ 소가 죽자 새끼를 꺼내 남편 몸보신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한 것에서 고랏댁이 암소가 송아지를 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양순이가 암소가 있던 외양간이 비워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 ⑤ 선출이는 소의 고삐를 잡으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위험한 일이라고 말리는 바람에 소를 제지하지 못했다.

24. [출제의도] 인물의 행위를 이해한다.

㉠은 공임을 올려받거나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기 위해 황씨에게 항의하며 고의로 갈등을 조성하였지만, ㉡은 황씨의 암소가 죽지 않도록 힘을 모아 돕고 있다.

[오답풀이] ② ㉠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지만, ㉡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은 원하는 바를 황씨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노동 조건을 좋게 하고자, ㉡은 암소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암소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장래성과 희망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황씨에게 항의하고, ㉡은 암소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황씨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다. ⑤ ㉠은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은 암소를 살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자 암소를 잡으면 싼 값에 고기를 살 수 있겠다는 실리적인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A]로 인해 중심인물인 황씨는 세상의 유행에 관심을 갖게 되지만, [B]로 인해 마을 공동체에 반감을 가지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A]는 산업화로 인한 공업단지 조성, 카시미론이라는 공장제 생산품의 등장과 같은 사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사건이고, [B]는 고랏댁이 무심코 술 지게미를 여물통에 놓아둔 것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다. ② [A]에 대해 중심인물인 황씨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음에 대해 회한을 드러내고, [B]에서 황씨는 암소의 허무한 죽음에 대해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A]는 공업단지의 조성과 카시미론의 등장 등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의 과정이, [B]는 암소가 죽어가는 하룻밤 사이의 과정이 나타난다. ④ [A]는 사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황씨의 행동이, [B]는 암소가 죽어가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 있다.

[26～29] (현대시) (가) 나희덕, 「연두에 울다」/(나)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가) 나희덕, 「연두에 울다」

노쇠한 화자가 여름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의 연둣빛 벼들의 모습을 보고 지난날을 떠올리며 젊음에 대한 그리움과 생명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작품이다.

(나)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고향과 가족을 떠나 홀로 객지에 있는 화자가 겨울날 세 들어 사는 방에서 지난날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작품이다.

26.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적으로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이해한다.

(가)는 '여름 들판', '연두' 등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젊음을 그리워하며 갈망하는 시적 상황을, (나)는 '눈'과 '추위' 등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타향에서 고독하게 지내는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저 순연한 벼포기들',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에서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으나, (나)에 명사로 마무리되는 시행은 없다. ③ (가)는 소재의 나열이 나타나 있지 않고, (나)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에서 소재의 나열이 나타나지만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27.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이해한다.

A와 B 모두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화자는 현재의 아픔을 인식하고 있고, B에서 화자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② A와 B 모두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 아니다. ③ A에서 화자는 애상감을 느끼지만, B에서 화자가 자족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화자는 슬픔을 느끼고 있고, B에서 화자는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28. [출제의도] 시상의 흐름을 바탕으로 시구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

'나를 빛바래게' 하려 '햇빛'이 쏟아지는 것은 화자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화자를 성숙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연둣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라는 표현에서 연둣빛 벼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족과 떨어져 '쓸쓸한 거리'를 '헤매'인다는 것을 통해 화자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외롭게 방황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④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한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⑤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한다는 표현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이켜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에서 '들판'은 노쇠한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화자는 들판의 푸른 생명력에 주목하고 있다. (나)의 '바람은 더욱 세게'에서 '바람'은 화자를 힘겹게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떨리는 손으로 풀죽은 김밥'을 먹는 것은 투병 중인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나)의 '문밖에 나가지두 않고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은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에서 생기를 잃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무기력한 화자가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조건'으로서 '울음'이 터지는 것은 화자가 절망감과 슬픔을 느끼다가 생명력에 대한 감정과 의지를 느끼며 긍정적 정서로 변화하는 계기이다. (나)의 '나를 이끌어 가는' 운명으로서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한 것은 화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현실 극복 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이다. ⑤ (가)의 '그

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에서 생명력을 지닌 연둣빛 벼들의 모습을 보며 화자가 생명력 회복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화자가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에서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를 견디며 버티는 갈매나무처럼 살고자 하는 화자의 현실 극복 의지를 알 수 있다.

[30～33] (과학) 이경준, 「수목 생리학」

이 글은 C3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모든 식물의 광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누어진다.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이며,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와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쌀과 밀 등 대표적인 식량 작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식물은 C3 식물로, 암반응 과정이 캘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된다. 캘빈 회로는 이산화 탄소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RuBP와 결합하여 3탄당을 형성하고, 3탄당이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포도당을 생성한 후,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이 RuBP로 재생되어 이산화 탄소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되는 순환 과정을 가리킨다. 그런데 C3 식물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 한편, C4 식물은 C3 식물과 달리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도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이는 식물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엽육 세포는 C4 식물의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써 탄소를 저장하는 곳이다. 대기 중 이산화 탄소는 PEP와 결합하여 4탄당을 형성한다. 4탄당은 엽육 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 세포로 이동하여 분해되어 이산화 탄소를 배출한다. 배출된 이산화 탄소는 캘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쓰인다. 유관속초 세포에는 이산화 탄소가 농축되어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C3 식물보다 높은 광합성 효율을 유지하게 된다.

30.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이 글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목적, C3 식물과 C4 식물의 이름에 담긴 의미,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광합성을 통하여 생산되는 포도당이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② 3문단에서 C3 식물이라는 이름은 이 식물의 암반응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3탄당임을 고려하여 붙여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5문단에서 C4 식물이라는 이름은 이 식물의 암반응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와 PE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4탄당임을 고려하여 붙여졌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으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C3 식물의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어 대표적인 식량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 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어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31.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2문단에서 명반응의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3문단에서 암반응의 부산물로 물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설명된 명반응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쓰이지 않으며 3문단에서 이산화 탄소가 필요한 것은 암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에서 이산화 탄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물의 분해는 명반응 과정에서 빛 에너지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에서 물의 분해가 진행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서 명반응은 물을 분해하는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물이 재생하는 반응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에서 물을 재생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서 명반응은 빛의 세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해질 때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3문단에서 제시된 암반응은 빛의 세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 ㉡에서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반응이 활성화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인을 추론한다.

2문단에서 이산화 탄소의 흡수는 기공을 통해 이루어지며, 4문단에서 C3 식물은 기온이 높을 때 기공을 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온이 높을 때 흡수되는 이산화 탄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문단에서 캘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 탄소 농도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C3 식물의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는 원인은 캘빈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 탄소의 양이 줄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빛 에너지는 명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기온이 높거나 건조해져 흡수되는 이산화 탄소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암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가 적어지는 것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는 원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기온이 높아지면 식물의 기공이 닫혀 대기 중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기 어려워지므로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농도와 관련없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옅어지는 것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는 원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기온이 높아지면 식물의 기공이 닫혀 산소의 배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기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는 원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C3 식물에는 탄소를 저장하는 공간이 없으므로 광합성에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더 많아지는 것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저하되는 원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a는 C3 식물의 엽육 세포, b와 c는 각각 C4 식물의 엽육 세포와 유관속초 세포를 가리킨다. 3문단과 5문단에서 a와 c의 캘빈 회로에서는 모두 RuBP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C3 식물의 광합성은 엽육 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a는 엽육 세포임을 확인할 수 있다. 5문단에서 C4 식물의 광합성은 두 개의 공간에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것은 엽육 세포이고, 캘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곳은 유관속초 세포라고 하였으므로 b는 엽육 세포, c는 유관속초 세포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C3 식물은 엽육 세포에서 이산화 탄소가 RuBP와 결합하여 3탄당을 형성하고, 3탄당이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포도당을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5문단에서 C4 식물은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 탄소가 엽육 세포에서 PEP와 결합하여 4탄당을 형성하고, 4탄당은 유관속초 세포로 이동하여 포도당 생성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C3 식물의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엽육 세포이고, 5문단에서 C4 식물의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도 엽육 세포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C3 식물은 엽육 세포에서 이산화 탄소와 RuBP가 루비스코를 촉매로 결합하며, 5문단에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에서 이산화 탄소와 RuBP가 루비스코를 촉매로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34～38] (사회) 김희균, 「처음 법학」

법의 대표적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가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고소하면 형사 소송이 시작된다. 피고인은 이에 반박할 수 있으며 법관은 범죄의 종류, 범죄 동기 및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한다. 반면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적용되어 분쟁 해결 및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민사 소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이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개인은 피고가 되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하나의 사건이라도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각각의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실 관계,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가 달라 상이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므로, 원고와 피고 중 입증 정도가 더 높은 쪽이 승소하게 된다.

34.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을 이해한다.

형사법과 민사법이라는 서로 다른 두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하거나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인 '기소'라는 용어의 개념을 제시하며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② 6문단에서 형사 소송법 제275조의2 내용을 인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문제 상황을 가정하여 형사법과 민사법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이 있다는 예외적 조건을 제시하여, 검사가 기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원칙과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다.

3문단에 의하면 형사 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며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피고인이 변호사를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의하면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② 2문단에 의하면 민사법에서는 수평적 균형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였다면 균형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 의하면 형사 소송에서는 범죄 종류뿐 아니라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과 같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⑤ 6문단에 의하면 민사 소송에서 요구되는 입증 정도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고, 법원은 제출한 증거로 판단한다 하였으므로 개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면 유리해질 수 있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을 때에는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섣불리 한 사람이 죄 없는 자를 벌하여 기본권을 침

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될 뿐이다. ② 법언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사회 질서 유지가 기본권 보호보다 우선할 수 없다. ③ 규정된 범죄가 아니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은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 ④ 법언은 확실한 범죄자가 아니면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불리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내용과 관련이 없다.

37.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보기>의 ㄱ에서 B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행위는 무죄 선고 과정에서 고려된 사실이 아니다. 무죄 선고 이유로는 구조가 복잡하고 열악했던 도로 환경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ㄱ은 검사가 기소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으므로 형사 소송에 해당하며 형사 소송은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ㄴ은 피해자 B에 의한 민사 소송으로, 민사 소송은 피고와 원고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ㄱ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이 인정되지 못하였음을 사실 관계의 근거로 들고 있고, ㄴ에서는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두 가지 소송은 서로 다른 소송이므로 입증해야 하는 사실 관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③ ㄱ에서는 형사 소송에서 무죄가 판결되었으므로 검사가 제시하였을 A에 대한 유죄 입증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ㄴ에서는 B가 승소하여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B의 입증 정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ㄱ에서는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의 이유로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생겨 무죄가 선고되었다. ㄴ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이 있어 안전 운행을 하였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법관은 판결을 통해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적절하다'는 '꼭 알맞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적절하게'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견주어'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상이하다'는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상이할'은 '서로 다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고려하다'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따져'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도출하다'는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내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도출되지'는 '나오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신뢰하다'는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신뢰할'은 '믿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39～42] (고전시가 고전수필 복합) (가) 윤선도, 「만흥(漫興)」/(나) 홍석주, 「전간대(田間對)」

(가) 윤선도, 「만흥(漫興)」

이 작품은 총 6수의 연시조로,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한가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나) 홍석주, 「전간대(田間對)」

이 작품은 밭을 사이에 두고 모계위와 어떤 이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양심과 도덕성 없이 시류에 휩쓸리는 당대 사대부들의 행태를 비유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39.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삶 이외의 것들은 부러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나)는 '홀로 나무 그늘에 구구히 얽매이겠습니까?'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외부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으며, (나)에서는 계위를 꾸짖는 자의 인식이 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에서는 서로 다투며 그늘에 드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모계위가 반문하는 부분에서 점층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부도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점층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사람들이 나무 그늘을 따라 옮겨 다니는 부분에서 해학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상황의 해학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에서는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와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와 같은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나)에서는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40. [출제의도] 작품 간 구절의 의미를 비교한다.

(가)의 ㉠은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는 화자의 행위에 대한 '그 모른 남들'의 반응이며, (나)의 ㉡은 '꾸짖는 자'가 줏대 없이 움직인 것임에도 자신에게 지조가 없다고 비판하는 말에 대한 '모계위'의 반응이다. 이를 고려할 때, ㉠에는 화자의 행위에 공감하지 못하는, ㉡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겨 있다.

[오답풀이] ① ㉡에는 염치없는 말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담겨 있지만, ㉠은 줏대 없는 행위에 대한 반응은 아니다. ② ㉠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담겨 있지만, ㉡은 원망하는 말에 대한 반응은 아니다. ④ ㉡에는 자신을 조롱하는 말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담겨 있지만, ㉠은 화자의 행위에 대한 '남들'의 반응이다. ⑤ ㉠은 열등감을 숨기려는 행위에 대한, ㉡에는 선입견을 지닌 말에 대한 질책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 의식을 파악한다.

[A]에서 '모계위'는 순리에 따라 자신이 할 일을 다하면 외물에 휘둘리는 것이 없기에 나무 그늘 같은 외부 상황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오답풀이] ②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③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남들보다 더 농사일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④ 적절한 때를 알고 행동하면,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아니다. ⑤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나)의 모계위가 '눈과 얼음 속에서'는 '여우 담비 털옷을 덮어 주면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은, '인정'을 언급한 것으로 자신도 타인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띠집'을 짓고 사는 것이 자신의 '분'이라 여기는 점에서, (나)의 모계위는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라고 여기는 점에서 분수에 맞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가)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에서 화자가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에서 화자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하늘'이 자신에게 '강산을 지키라 하'였다는 표현에서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이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것임을 밝히며, 자신의 삶을 떳떳한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모계위가 '다른 사람과 다'투며 '그늘에 들어가는 것'은 '햇볕 아래 홀로 서 있는 것만도 못'하다고 비판한 것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하는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45] (고전소설) 작자 미상, 「쌍주기연」

「쌍주기연」은 명나라를 배경으로 영웅이 천자에 대한 충의를 저버린 적대국의 반란을 평정하고 적대국에 볼모로 잡힌 부친을 구출하여 충효의 가치와 천자 중심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는 내용의 영웅 소설이다. 수록 부분은 남만 태자가 서 안무사의 탈출을 도와 부자가 재회하는 장면과 서 원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태자의 은혜에 보답하는 장면이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지금은 엄연히 대장이니 어찌 알아보리오.'에서 서 안무사가 서 원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서 안무사는 서 원수에게 서찰을 보낸 후 서 원수와 재회하였다. ③ 서 원수가 싸움을 돋우어도 만왕이 나오지 않자, 만왕을 잡기 전에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냈다. ④ 태자가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나는 도중 만난 '패잔군'으로부터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⑤ 태자가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 문서'를 써서 서 원수에게 올렸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B]는 서 원수가 태자에게 하는 말로, 태자를 보고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나,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는 표현에서 하늘이라는 초월적 권위를 명분으로 만왕을 죽이지 않고 태자를 만왕에 봉하는 것으로 서 원수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A]에는 초월적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A]와 [B]는 모두 객관적인 근거를 들지 않았으며, [A]에는 현실에 대한 기존 판단이 바뀌는 과정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B]는 서 원수가 태자에게 왕으로서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지라고 하여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는 태자가 곡 승상에게 '부왕께 귀순하시도록 간하여 보'자고 요청하고 있다. ④ [A]는 서 원수와 서 안무사가, 아버지를 '구하여 줄 것'이라며 타인의 힘을 빌려 부왕의 목숨을 구하려 하고 있다. [B]는 서 원수 자신의 문제 상황이 아니라 태자와 만왕의 문제 상황이다. ⑤ [A]와 [B]는 태자와 서 원수 모두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으며, 이를 통해 상대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도 않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태자가 서 원수에게 '부왕의 본심'을 전했지만, 이것이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결정적 원인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전쟁 상황에서 적대국 인물인 만왕은 서 안무사를 '볼모로 삼'으려는 반면, 또 다른 적대국 인물인 태자는 이를 거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이 다름을 알 수 있다. ② 서 원수에게는 국난을 해결하여 충을 실현하고, 아버지를 구하여 효를 실천하는 두 가지 과업이 있다. 태자가 아버지인 서 안무사를 풀어 주어 서 원수가 아버지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태자가 영웅의 효 실천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고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서천흥의 영웅으로서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남만국이 명나라와 전쟁한 것은 제후국이 천자 중심의 위계를 무너뜨린 것인데, 서 원수가 태자를 만왕으로 봉하면서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

은 무너진 위계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